

코로나19(COVID-19) 유행 시 첫 임상실습 전·후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이외선¹, 임정혜^{2*}

¹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교수, ²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Image of nurs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in the COVID-19 pandemic

Oi-Sun Lee¹, Jung-Hye Lim^{2*}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yeongnam Geochang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상황에서 첫 임상실습 전후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간호대학생 36명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PASW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OVID-19 상황에서 첫 임상실습 후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t=-2.219, p=.034$), 간호전문직관($t=-3.444, p=.002$)은 실습 전보다 유의하게 높아졌다. 하부 항목 중 사회적 이미지($t=-3.113, p=.004$), 전문적 자아개념($t=-2.442, p=.021$), 사회적 인식($t=-3.829, p=.001$), 간호의 전문성($t=-2.299, p=.028$)이 실습 후 유의하게 높아졌다. 첫 임상실습 후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831, p<.001$). COVID-19에 대처하는 간호사들의 모습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간호교육 전략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주제어 : 임상실습,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직관, 간호학생, COVID-19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first clinical practice on the image of nurs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situ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6 nursing college student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June to July 2020 and analyzed by PASW 22.0. After the first clinical practice in the COVID-19 pandemic, the nurse image ($t=-2.219, p=.034$) and nursing professionalism($t=-3.444, p=.002$)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before practice. Social image ($t=-3.113, p=.004$),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t=-2.442, p=.021$), social awareness($t=-3.829, p=.001$) and professionalism of nursing($t=-2.299, p=.028$)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first clinical practice. After the first clinical practice, nursing professionalism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image of nurse($r=.831, p<.001$). The attitude of nurses to cope with COVID-19 positively influenced nursing students' nurse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preparing educational strategies after COVID-19.

Key Words : Clinical practice, Image of nurse, Nursing professionalism, COVID-19, Nursing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Jung-Hye Lim(blueljh22@naver.com)

Received February 9, 2021

Accepted May 20, 2021

Revised March 16, 2021

Published May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중국에서 2019년 11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COVID-19)으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다[1]. 국내에서도 첫 감염환자가 2020년 1월 발생하면서 유행되기 시작하여 현재 COVID-19 누적 확진자가 78,884명, 격리 중 대상자가 누적 8,634명, 누적 사망자가 1,435명(2021년 2월 2일)에 이르고 있다[2]. COVID-19는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현재까지 비말, 접촉을 통해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감염성 질환이다[3]. 이러한 COVID-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인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마침내 COVID-19로 인한 의료인 사망이 발생하면서 사망자 수가 세계적으로 7,000명에 이르고 있고, 국내에서도 의료인 사망이 발생하였다[4]. 2000년대 들어서면서 2002년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로 불려진 중등호흡기증후군, 2019년 COVID-19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감염성 질환들이 유행되어져 왔다.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 유행 발생상황 속에서도 간호사들은 환자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갑작스러운 COVID-19로 간호사들은 충분한 사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족한 휴식시간, 보호장구의 부족과 재사용 등 급조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채 두려움을 가지고[5],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들도 본인에게 전파될까 하는 감염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임상실습을 접하고 있다[6].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전문적 간호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간호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체험하고[7],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간호사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임상실습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졸업시까지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8]. 첫 임상실습은 간호학생들이 실제로 간호사가 업무 수행하는 모습을 곁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로 첫 임상실습에서 느끼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간호학문에 자긍심을 갖고 간호학문을 계속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9]. 실습 현장에서 만나는 간호사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미래의 자신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하게 된다. 첫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학생들은 자신과는 다르게 임상 현장에서 능숙하게 일을 해내는 간호사를 대면하면서 간호사이미지를 궁

정적으로 형성하기도 하고[10], 반면에 간호이론과 실제의 차이, 의사와 간호사의 대립적 관계, 간호사의 비교육적 태도 등을 경험하면서[11], 자신이 갖고 있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현재의 간호사이미지 사이에 모순이 생겨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기도 한다[12]. 간호사이미지는 간호사에 대해 가지는 신념과 사고 및 인상의 총합이며[13], 의사, 환자, 보호자 등과 상호작용을 통해 갖게 되는 느낌이기도 하다[14]. 간호대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간호사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을 한다는 전문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높게 갖고 있으며[15], 이러한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는 임상수행 능력 만족도의 향상과 간호사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15, 16], 첫 임상실습에서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경험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COVID-19라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레벨D의 방호복을 착용하고 선별진료소 및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며 감염질환의 최일선에서 일차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면서 첫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회생, 책임감 등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감염질환 시대를 대비한 간호교육의 나아갈 방향 설정에 근거가 될 것이다.

간호사이미지는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14], 첫 임상실습을 통해 임상실습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간호사들은 이들의 전문직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호학생은 전문직업인의 자아개념을 형성해 가고 있는 단계로서, 이 전문직관은 전문직업인 모델을 통해 발전하는 습성이 있어서 학교에서 교육자를 통해 갖춰지기 시작하여 임상현장의 선배 간호사에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17], 첫 임상실습은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중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생각, 즉 이념, 대상자, 본질, 목적 등의 간호관에 직업관을 결합시킨 의미로[18],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견해나 신념,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의식적인 견해이다[19]. 긍정적 전문직관을 가진 간호사일수록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있어서도 성과가 높다[20]. 따라서 간호교육을 통해 올바른 전문직관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간호전문직관은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형성되고 임상실무를 통해 발달하게 되므로[19],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이 임상환경에 적응하고 간호사로서의 확고한 역할 인식을 획득하여 굳건한 직업관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21]. COVID-19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보건의료팀으로서 협력하고 전문간호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관찰 경험이 예비 간호사인 학

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파악은 향후 간호사의 직업관과 이직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의미가 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될 감염성 질환에 대비하는 간호의 역할과 위치 정립 및 간호교육의 나아갈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COVID-19 상황 시 첫 임상실습 전후 간호학생들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차이를 파악하여,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교육 전략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COVID-19 상황 시 첫 임상실습 전후 간호학생들이 지각하는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을 비교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첫 임상실습 전후의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직관을 파악하고 차이를 비교한다.

셋째, 첫 임상실습 후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첫 임상실습 전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첫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의 일 대학 간호학과 3학년으로 2주간 첫 임상실습을 수행한 학생을 편의추출 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실습은 총 6주(성인간호학 2주, 아동간호학 1주, 여성간호학 1주, 지역사회간호학 2주)간 계획되었으나, COVID-19 상황으로 다른 실습교과목은 원격실습으로 대체되었고, 성인간호학만 임상실습으로 이루어졌다. 성인간호학실습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는 이태원클럽 관련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고, 대전, 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에 서 집단감염 사례가 30%로 치솟으면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22]하는 시기이었다. 자료수집은 2020년 5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루어졌고, 대상자별로 임상실습 직전에 사전 자료수집과 2주 임상실습 직후 사후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실습기관은 G도 소재 국립대학병원으로 919병상의 상급종합병원이며, COVID-19 감염환자의 선별진료소와 입원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실습부서는 소화기계 병동(소화기내과, 일반외과), 근골격계 병동(정형외과)이었다. 실습 2주 전부터 실습 예정인 학생들의 동선 체크 및 일일 건강모니터링이 이루어졌으며, 실습 중에는 실습 병원 출입이 방역기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었고, 실습 병동에서는 실습 동안 하루 2회의 체온측정, 병원 내 구내식당 출입제한 등이 이루어졌다. 실습 병원의 감염관리지침 상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에는 실습중단 및 COVID-19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실습 도중 실습 학생의 발열로 실습중단 및 코로나 19 검사를 시행한 대상자가 1명 있었다. 대상자들은 실습 병동에서 발열환자 발생시 COVID-19 검사 및 격리 간호 수행을 관찰하였고, 호흡기계 병동은 실습 중단으로 간호사가 COVID-19 환자를 간호하는 것에 대한 직접 관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의 목적과 연구를 통해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비밀유지 및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허락하고 연구동의서에 서명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가 학생이라는 취약 신분임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아닌 다른 연구원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자의 권리, 연구 참여 여부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 익명성과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고 무기명 처리됨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았다.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 3.1.0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효과크기 .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으로 필요한 표본 수는 총 27명으로 탈락율 20% 고려하여 총 36명에게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 4부를 제외하고 최종 3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성별, 나이, 간호학 선택 동기, 간호사이미지 형성에 영향 요인, 전공만족도 등 총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3.2 간호사이미지

본 연구에서는 Yang[23], Kim과 Kim[24]의 도구를

Kang 등[25]이 수정·보완하여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문적 이미지 6문항, 전통적 이미지 6문항, 사회적 이미지 5문항, 간호직 전망 3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Kang 등[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2.3.3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에서는 Yeun 등[26]이 개발하고 Han 등[2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문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 등[2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평점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첫 임상실습 전후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paired t-test, Wilcoxon's signed rank test로 분석하였고,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과 같이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27명(84.4%), 연령은 21세 이상이 24명(75.0%), 간호학 선택 동기는 적성과 흥미 12명(37.5%), 가족의 권유가 8명(25.0%)으로 많았다. 간호사이미지 형성에 영향 요인은 입원 및 병원방문 시 간호사의 모습 14명(43.8%), 대중매체가 9명(28.1%)으로 많았고, 간호학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8명(56.3%)으로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Women	27(84.4)
	Men	5(15.6)
Age (yr)	≤20	8(25.0)
	21≥	24(75.0)
Motivation to study nursing	Aptitude and interesting	12(37.5)
	Fitting to grade	2(6.3)
	Recommendation of family	8(25.0)
	Well-employed	5(15.6)
	Servable job	5(15.6)
Factor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nurse's image	Mass media	9(28.1)
	Hospitalized or visited the hospital	14(43.8)
	A nurse among my family and relatives	4(12.5)
	Clinical practice	2(6.2)
	Indirect experience through professors	3(9.4)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	18(56.3)
	Moderate	12(37.5)
	Dissatisfied	2(6.2)

3.2 COVID-19 유행시 첫 임상실습 전후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첫 임상실습 전 간호사이미지는 4.17점이었고, 실습 후 4.43점으로 유의하게 높아졌고($t=-2.219, p=.034$), 사회적 이미지도 실습 전 3.99점에서 실습 후 4.33점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t=-3.113, p=.004$). 전문적 이미지는 실습 전 4.44점에서 실습 후 4.71점, 전통적 이미지는 실습 전 4.24점에서 실습 후 4.45점, 간호직 전망

Table 2. Difference of nurse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N=32)

Variables	Pretest	Posttest	t(p)
	Mean±SD	Mean±SD	
Nurse image	4.17±0.62	4.43±0.43	-2.219(.034)
Professional image	4.44±0.77	4.71±0.41	-1.817(.079)
Traditional image	4.24±0.84	4.45±0.54	-1.327(.194)
Vision of nursing career	3.82±0.63	4.00±0.71	-1.395(.173)
Social image	3.99±0.61	4.33±0.56	-3.113(.004)
Nursing Professionalism	4.09±0.47	4.37±0.51	-3.444(.002)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4.27±0.52	4.51±0.52	-2.442(.021)
Social awareness	3.63±0.72	4.19±0.73	-3.829(.001)
Professionalism of nursing	4.05±0.64	4.31±0.71	-2.299(.028)
The role of nursing service	4.31±0.59	4.21±0.75	.641(.526)
Originality of nursing	4.52±0.86	4.28±1.36	.879(.386)

은 실습 전 3.82점에서 실습 후 4.00점으로 높아졌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Table 2와 같이 간호전문직관은 첫 임상실습 전 4.09점에서 실습 후 4.37점으로 유의하게 높아졌고 ($t=-3.444, p=.002$), 전문적 자아개념은 실습 전 4.27점에서 4.51점($t=-2.442, p=.021$), 사회적 인식은 실습 전 3.63점에서 실습 후 4.19점($t=-3.829, p=.001$), 간호의 전문성은 실습 전 4.05점에서 실습 후 4.31점($t=-2.299, p=.028$)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간호계 역할과 간호의 독자성은 실습 전보다 실습 후에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3.3 첫 임상실습 후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첫 임상실습 후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831, p<.001$). 전문적 이미지($r=.707, p<.001$), 전통적 이미지($r=.639, p<.001$), 간호적 전망($r=.596, p<.001$), 사회적 이미지($r=.746, p<.001$)는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사회적 이미지가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전문직관의 전문적 자아개념($r=.819,$

$p<.001$), 사회적 인식($r=.756, p<.001$), 간호의 전문성($r=.782, p<.001$), 간호계 역할($r=.692, p<.001$)은 간호사이미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전문적 자아개념이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의 독자성은 간호사이미지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nurse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32)

Variables	Nurse's image r(p)	Professional image r(p)	Traditional image r(p)	Vision of nursing career r(p)	Social image r(p)
Professionalism	.831 (<.001)	.707 (<.001)	.639 (<.001)	.596 (<.001)	.746 (<.001)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819 (<.001)	.737 (<.001)	.630 (<.001)	.461 (.008)	.794 (<.001)
Social awareness	.756 (<.001)	.521 (.002)	.495 (.004)	.735 (<.001)	.738 (<.001)
Professionalism of nursing	.782 (<.001)	.671 (<.001)	.613 (<.001)	.430 (.014)	.782 (<.001)
The role of nursing service	.692 (<.001)	.547 (.001)	.541 (<.001)	.413 (.019)	.712 (<.001)
Originality of nursing	-.092 (.617)	.009 (.959)	.008 (.967)	-.044 (.810)	-.266 (.142)

3.4 COVID-19 유행시 첫 임상실습 전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Table 4. Difference in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rse's image			Nursing Professionalism		
		pre-test (M±SD)	post-test (M±SD)	t/Z(p)	pre-test (M±SD)	post-test (M±SD)	t/Z(p)
Gender	Women	4.21±0.38	4.43±0.46	-2.611(.015)	4.09±0.46	4.40±0.54	-3.379(.002)
	Men	4.02±1.40	4.44±0.23	-.672(.539)	4.09±0.57	4.22±0.24	-.753(.493)
Age(yr)	≤20	4.27±0.49	4.36±0.48	-.889(.403)	4.34±0.38	4.53±0.41	-1.468(.185)
	≥21	4.15±0.66	4.46±0.42	-2.077(.049)	4.01±0.47	4.32±0.54	-3.099(.005)
Motivation to study nursing	Aptitude and interesting	4.15±0.89	4.65±0.19	-1.915(.082)	4.27±0.41	4.60±0.31	-3.077(.011)
	Fitting to grade†	3.95±0.00	4.33±0.74	-.447(.655)	4.03±0.43	4.58±0.27	-1.342(.180)
	Recommendation of family	4.21±0.25	4.20±0.44	.051(.961)	3.91±0.34	4.06±0.51	-.947(.375)
	Well-employed	4.25±0.41	4.55±0.42	-1.179(.304)	4.08±0.43	4.62±0.40	-1.844(.139)
Factor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nurse's image	Servable job	4.20±0.68	4.21±0.59	-.144(.893)	3.99±0.78	3.98±0.69	.089(.933)
	Mass media	4.21±0.39	4.64±0.41	-2.225(.057)	4.12±0.47	4.56±0.54	-2.268(.053)
	Hospitalized or visited the hospital	3.99±0.82	4.24±0.43	-1.170(.263)	3.98±0.54	4.16±0.54	-1.656(.122)
	A nurse among my family and relatives	4.39±0.18	4.66±0.27	-1.432(.248)	4.07±0.35	4.51±0.36	-1.627(.202)
	Clinical practice†	4.60±0.35	4.73±0.18	-.447(.655)	4.42±0.43	4.64±0.11	-1.000(.317)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Indirect experience through professors†	4.40±0.43	4.18±0.38	-1.633(.102)	4.33±0.22	4.41±0.36	-.816(.414)
	Satisfied	4.35±0.35	4.56±0.38	-2.121(.049)	4.17±0.49	4.45±0.52	-3.092(.007)
	Moderate	4.08±0.39	4.23±0.47	-1.006(.336)	3.98±0.41	4.25±0.51	-1.540(.152)
Dissatisfied‡	3.18±2.29	4.50±0.07	-.447(.655)	4.00±0.79	4.36±0.59	-1.342(.180)	

†Wilcoxon's signed rank test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이미지는 여학생($t=-2.611, p=.015$), 연령은 21세이상($t=-2.077, p=.049$)과 간호학에 만족하는 경우($t=-2.121, p=.049$)에 실습 전 보다 실습 후 유의하게 높아졌다.

간호전문직관은 여학생($t=-3.379, p=.002$), 연령은 21세이상($t=-3.099, p=.005$), 간호학에 만족하는 경우($t=-3.092, p=.007$)에 실습 전보다 실습 후 유의하게 높아졌다. 또한 적성과 흥미로 간호학을 지원한 경우($t=-3.077, p=.011$)에 실습 전보다 실습 후의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첫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실습 전후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제적으로 파악하여 간호교육 변화의 지침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COVID-19 유행상황시 첫 임상실습 후 간호사이미지가 실습 전보다 유의하게 높아져서 간호사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첫 임상실습 후 간호사 이미지가 실습 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던 결과[9, 28]와 유사하다. COVID-19 유행상황에서 첫 임상실습은 간호학생들에게 감염의 위험이라는 불안과 부담감이 컸을 것이고[6], 또한 임상실습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기에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앞두고 이러한 실습에 대한 복잡한 심정과 또한 이런 기회에 실습을 해야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양가감정을 표현하였다[29]. COVID-19 이전의 결과와 유사하게 COVID-19 상황에서 첫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의 간호사이미지 향상은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를 보면서 불안과 두려움보다는 간호사로서의 책임감, 숭고함을 더 많이 느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며, 간호에 대한 정체성을 찾게 되는 일이다[30]. 간호사이미지의 하부 항목은 실습 전후 모두 전문적 이미지, 전통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간호직 전망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적 이미지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간호사의 전문성, 숙련성, 신뢰성을 나타내는 전문적 이미지의 점수가 높았고, 사회적 지위, 전망있는 직업, 가족이나 친지에게 권하고 싶은 직업의 의미를 나타내는 간호직 전망은 부정적 결과

를 보였던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이다[10, 24]. 이는 COVID-19 이전과 마찬가지로 갑작스런 COVID-19 상황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응급 상황에 잘 대처하고 모습들을 통해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기는 하지만, 힘든 직업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30]과 이에 대한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여겨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간호사이미지를 조사하였던 선행 연구에서도 전문적, 전통적, 사회적 이미지, 간호직 전망 순[9]으로 간호학생들의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결과와 같았다. 이것은 간호사이미지 형성이 학생 스스로 내부에서 형성한 경우도 있으나, 주변인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투영되기도 함을 의미한다[31].

첫 임상실습 후 간호사이미지 중 사회적 이미지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첫 임상실습 전후 전체 간호사이미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실습 후 사회적 이미지가 유의하게 높아졌던 결과와 유사하다[9]. 감염병의 공포 속에 누구도 선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임상현장에서 감염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모습과 COVID-19 유행지역으로 출선하여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떠나는 간호사들의 모습 등에 사회적 이미지가 다른 항목에 비해 더욱 높아진 결과로 생각된다. 전문적 이미지, 전통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모두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던 결과[9, 28]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반복적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학생의 간호사이미지는 임상현장에서 간호사 역할 모델에 의해 긍정적으로 형성되므로[28, 32], 간호학생들의 역할모델을 될 수 있는 우수한 임상지도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28]. 임상실습 및 교과과정을 통해 간호사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임상현장 지도자와의 협업을 통해 임상에서의 간호사들의 다양한 역할과 모델을 경험할 수 있는 임상간호사와 멘토·멘티 같은 전략 개발로 간호사의 비전을 제시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COVID-19 유행상황에서 첫 임상실습 후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은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이는 첫 임상실습 후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33]와 유사하다. COVID-19 이전의 결과와 유사하게 COVID-19 상황에도 간호전문직관이 향상된 것은 감염병이라는 위험한 상황에서 첫 임상실습을 하면서 현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며, 향후 간호사 직업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된 것으로 여겨진

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활동 과정 전체에 대한 직업적 견해로서 대학에서는 간호이론과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이라는 간호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신규 간호사들의 이직률은 전체 간호사 이직률의 66.5%를 차지[34]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규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이직의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35],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간호사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높고, 이직의도가 낮았다[27]. 이와 같이 신규간호사가 되기 위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간호전문직관이 영향을 미치므로[36],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형성은 중요하다. 따라서 COVID-19로 힘들게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모습 속에서도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이 향상을 보인 것은 향후 신규 간호사 이직률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해 임상 실무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간호전문직관에 충분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COVID-19로 임상실습이 중단되고 교내실습으로 대체하는 이 시점에서 임상실무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융합적인 시뮬레이션 실습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은 첫 임상실습 후 전문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이 실습 전보다 유의하게 높아졌고, 간호계 역할과 간호의 독자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첫 임상실습 후 사회적 인식은 유의하게 높아졌으나, 간호의 독자성은 유의하게 낮아진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다[33]. COVID-19 이전과 같이 COVID-19에 대처하는 간호사들의 모습이 더욱 독립적이며 전문인으로서 협력하고 존경받고 대우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호계 역할이나 독자성에 차이가 없었던 것은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이 학교에서의 교육과 임상실습에서 오는 괴리감[36, 37]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간호사의 업무가 환자 간호의 독자적 업무 외에 의사와 타 직종들과의 협업 관계의 업무가 많음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첫 임상실습 후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사회적 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과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전문적 자아개념이 간호사이미지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12, 38], 간호사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고, 하부 항목 중 사회적 이미지, 전문적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12]. 이는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해서는 긍정적 간호사 이미지 확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과 강한 상관관계, 전문적 자아개념이 간호사이미지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결과와 유사하다[38]. 이는 간호사의 자신감 있는 모습, 타 의료인들과의 동료로서의 모습과 건강교육자로서의 역할 등의 사회적 이미지 향상이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또한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인격, 태도, 자세 등 전문적 자아개념의 향상이 학생들의 간호사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결과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COVID-19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변화는 학생들에게 간호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간호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직 간호인으로서 직업관 확립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은 여학생, 21세이상인 경우에 실습 전 보다 실습 후 유의하게 높아졌다. 실습 전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드물어 직접적 논의는 어려우나,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같이 간호학과는 여학생이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3학년이 대부분 21세 이상[38]에 해당되므로, 실습 후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이 향상된 결과를 나타낸 것은 COVID-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이 간호학생들에게 전반적으로 감염 위험이라는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간호학에 만족하는 경우에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이 실습 전보다 실습 후에 유의하게 높아졌는데, 이는 집단 차이에서 전공만족도가 매우 만족인 경우에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의 수준이 높았던 결과[38]와 유사하며, 따라서 간호교육 현장에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적성과 흥미로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에 실습 전 보다 실습 후의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아졌는데, 이는 적성과 흥미로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대학 입학 시 간호사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진로를 결정하였을 것이고, COVID-19 상황에서의 임상실습이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간호학 선택 동기가 취업이 잘 되는 이유로 인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이 선행 연구결과들에서 나타나고 있다[36]. 취업난으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이런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전문직관이 첫 임상실습 전후 간호학 선택동기에 따른 차이 없었던 결과[33]와는 차

이가 있어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COVID-19 상황 속에서 첫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호학생들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이 상승한 것은 간호학생들에게 COVID-19에 대처하는 간호사들의 모습이 긍정적 영향을 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COVID-19로 인해 교육은 강의실이 아닌 비대면 수업이라는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임상실습도 제한적이거나 교내 실습으로 대체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장 큰 변화는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로 보건 의료계에도 영향을 미쳐 고도의 전문 의료서비스로의 전환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40]. COVID-19 이후 직면할 시대 변화에 맞춰 간호 교육 현장에서도 고도의 전문간호서비스[40]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키우는 간호 교육이 필요하다. 변화에 따라가기 보다는 변화의 주체로서 앞서가는 간호사들의 모습은 간호사이미지를 좀 더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간호사이미지의 향상은 간호전문직관 향상에도 기여하여 간호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COVID-19 유행 상황 시 첫 임상실습 전후 간호학생들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차이를 파악하여,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교육 전략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학생의 COVID-19 유행 시 첫 임상실습 후 간호사이미지는 유의하게 높아졌고, 하부 항목은 사회적 이미지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임상실습 후 간호전문직관도 유의하게 높아졌고, 전문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첫 임상실습 후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은 여학생, 21세이상, 간호학에 만족하는 경우에 실습 전보다 실습 후에 유의하게 높아졌고, 간호학 선택 동기가 적성과 흥미인 경우에 실습 후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임상실무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융합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방안 마련으로 간호사이미지 향상과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기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Available From: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
- [2]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Call Center. (2021.02.02.). *COVID-19*. <http://ncov.mohw.go.kr/>
- [3]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Call Center. (2021.02.02.). *COVID-19*. <http://ncov.mohw.go.kr/baroView.do?brdId=4&brdGubun=41>
- [4] S. Y. Lim. (September 04, 2020). *JoongAng Ilbo*. <https://news.joins.com/article/23864625>
- [5] L. H. Son. (May 27, 2020). *Medifonews*.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53285>
- [6] C. K. Lee & J. H. Ahn. (2020). Colleg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2), 142-152.
- [7] J. J. Yang. (2003). Nurse's image perceived by student nurse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9(1), 64-72.
- [8]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The first half year of 2017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manual for nursing school*.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http://www.kabone.or.kr/>
- [9] H. S. Kang & W. O. Kim. (2002). Changes in the image of the nurse for student nurse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9(3), 379-387.
- [10] H. J. Lee. (2014). Image of nurse perceived by nursing student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2), 129-135. <http://dx.doi.org/10.14370/jewnr.2014.20.2.129>
- [11] M. Y. Park & S. Y. Kim. (2000).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s first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6(1), 23-35.
- [12] H. J. Jung. (2020). Effects of image of nurse, clinical performance,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7(3), 635-648. <http://dx.doi.org/10.12925/jkocs.2020.37.3.635>
- [13] B. J. Kalisch & P. A. Kalisch. (1983). Improving the image of nursing, *Am J Nurs*, 83(1), 48-52.
- [14] K. M. Lim & E. J. Jo. (2016).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556-566.
- [15] J. Choi & N. S. Ha. (2009).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 15(1), 54-63.
- [16] S. H. Lee, S. Y. Kim & J. A. Kim. (2004).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 Korean Acad Nurs Adm*, 10(2), 219-231.
- [17] Y. S. Ham, H. S. Kim, I. S. Cho & J. Y. Lim. (2011).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17(3), 536-544.
- [18] G. M. Hampton & D. L. Hampton. (2004). Relationship of professionalism, rewards, market orientation and job satisfaction among medical professionals: The case of Certified Nurse-Midwiv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7, 1042-1053.
- [19] M. J. Schank & D. Weis. (2001). Service and education share responsibility for nurses' Value development. *J Nurse Staff Dev*, 17(5), 226-231.
DOI: 10.1097/00124645-200109000-00002
- [20] K. Hallin & E. Danielson. (2007).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their 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 Adv Nurs*, 61(1), 62-70.
DOI: 10.1111/j.1365-2648.2007.04466
- [21] G. S. Oh & M. K. Lee. (2015). An internship experience to conver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6(5), 173-185.
- [22] S. M. Shin. (July 4, 2020). *Yonhapnews*.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3136600530>
- [23] I. S. Yang. (1998).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J Korean Acad Nurs Adm*, 4(2), 289-306.
- [24] H. J. Kim & H. O. Kim. (2001). A study on image of the nurse. *J Korean Acad Nurs Adm*, 7(1), 97-110.
- [25] H. Y. Kang, M. H. Go, J. J. Yang & S. M. Kim. (2003). Nurse's image perceived by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in Korea. *J Koreans Acad Nurs*, 33(6), 792-801.
- [26] E. J. Yeun, Y. M. Kwon &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 Koreans Acad Nurs*, 35(6), 1091-1100.
- [27] S. S. Han, M. H. Kim & E. K. Yun.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73-79.
- [28] W. O. Kim & H. S. Kang. (2004). Changes of nurse's image perceived by nursing student as every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0(1), 41-47.
- [29] C. K. Lee & J. H. Ahn. (2020). Colleg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2), 142-152.
<https://doi.org/10.5762/KAIS.2020.21.12.142>
- [30] M. H. Park & J. J. Yang. (2002). A study on the nurse's image perceiv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 8(1), 107-121.
- [31] M. K. Lee & B. K. Kim. (2013). A Study on analysis of the adolescent identity appearing in the psychological theory of Erickson. *Journal of the Korea Welfare practice*, 5(2), 83-101.
- [32] Y. Hoeve, G. Jansen. & P. Roodbol. (2014). The nursing profession: public image, self-concept and professional identity. A discussion paper. *J Adv Nurs*, 70(2), 295-309.
DOI : 10.1111/jan.12177
- [33] E. H. Park & R. H. Hang. (2017). Change i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of the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8(9), 85-91.
<https://doi.org/10.14400/JDC.2017.15.1.593>
- [34] Y. J. Yang & S. A. Park. (2020). The effects of nursing image,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For nursing students in Chungcheong and Gangwon areas. *Culture and Convergence*, 42(10), 903-930.
<https://doi.org/10.33645/cnc.2020.10.42.10.903>
- [35] H. Y. Jung & S. Y. Kim. (2016).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involvement on turnover intention among new graduate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22(5), 531-539.
<http://dx.doi.org/10.11111/jkana.2016.22.5.531>
- [36] Y. J. Ko & I. K. Ki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62-71.
- [37] S. H. Ko. (2004).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 *J Korean Acad Nurs Adm*, 10(3), 335-343.
- [38] J. A. Seong, E. Y. Yeom & Y. S. Do. (2014). Image of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4), 798-809.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1.798>
- [39] Y. M. Kwon & E. J. Yeun. (2007).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 13(3), 285-292.
- [40] E. G. Oh. (2020). Perspectives on nursing profession for a post-COVID-19 new normal.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32(3), 221-222.

이 외 선(Oi Sun Lee)

[정회원]



- 1992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1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2019년 2월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경남도립거창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감성지능, 간호교육, 성인간호

임 정 혜(Jung Hye Lim)

[정회원]



- 1993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사)
- 1999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2009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11월 ~ 2019년 8월 : 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9년 9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감염관리, 종양환자간호